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국말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국말이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국말이

완성된 이름

국말이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국말이

한눈에 보는 기록

뜻

국에 만 밥이나 국수.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국말이			
국마리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국에 만 밥이나 국수.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국말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국에 만 밥이나 국수.

☞ 국말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국말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국말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국마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국말이
19세기20세기현재
- 국마리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국말이, 국마리



국말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국말이’는 19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말의 구성과 어원

‘국말이’는 고기, 생선, 채소 따위에 물을 많이 붓고 간을 맞추어 끓인 음식을 뜻하는 ‘국’과 밥이나 국수 따위를 물이나 국물에 넣어서 풀다를 뜻하는 ‘말-’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 표기와 소리의 특징

20세기에는 ‘국마리’와 같이 연철 표기된 형태도 나타난다. ‘국말이 밥’, ‘국마리 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헌 속의 국말이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국말이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국말이

📖 출처 1880 한불사전 204

용례 01

66 문헌 용례

국말이[羹飯].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국말이, 국마리

출처 1936 조선일보 12월 15일 석간 5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장국밥 肉湯飯 국밥 入羹飯 국말이 同臨時混飯.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동아일보 6월 5일 석간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윤수와 경우는 그들보다 먼저 와서 국말이 밥을 사 먹고 물러나 앉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동아일보 3월 19일 조간 4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그런가 하고 보니, 술집으로 들어가서 제법 국마리 밥을 사먹거나 술 잔이나 사 먹는 사람은
금점꾼의 패토를 차고 나신 저 혼저 몸들을 가진 사람 뿐인 것 같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9 동아일보 5월 13일 석간 4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어머니 옆의 순이는 보시기에 덜어 놔 준 국말이를 먹습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9 조선일보 6월 25일 조간 3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여름철에도 국마리 밥은 대개 늦그릇을 쓰고 있는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국말이의 보충 설명

한자어 ‘갱반(羹飯)’은 국과 밥을 이르는 말인데, 19세기 문헌에서는 ‘국말이’ 외에 ‘국밥’에 대응되어 나타났다. [예] 국밥[羹飯] 《한불자전》에서는 ‘국밥’은 밥을 넣어 끓인 국으로, ‘국말이’는 국에 적셔진 밥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말이 관련 낱말



- 국밥명사뜨거운 국에 밥을 넣은 음식이나 국에 밥을 넣고 끓인 음식.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기](#)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국말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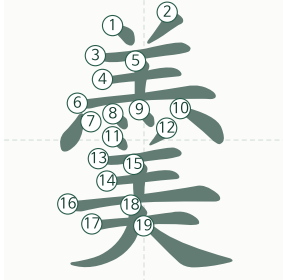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국말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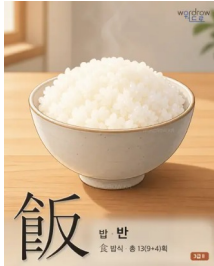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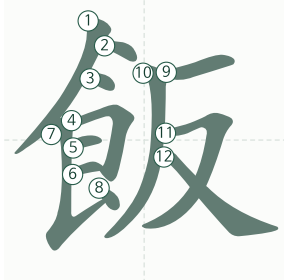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羹 뜻·음 국羹
총 19획 · 부수 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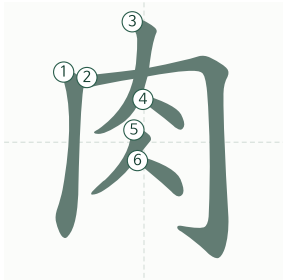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羹/

飯 뜻·음 밥반
총 13획 · 부수 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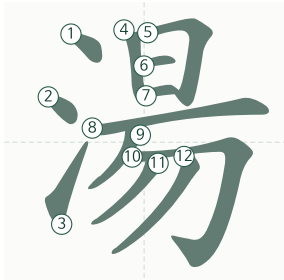
사전 13획 · 획순 그림 12획
hanja.wordrow.kr/한자/飯/

肉 뜻·음 고기육
총 6획 · 부수 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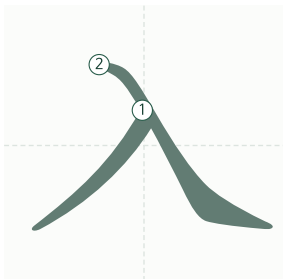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肉/

湯 뜻·음 끓을탕
총 12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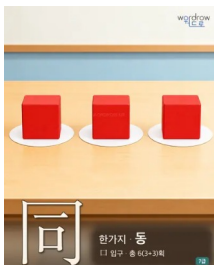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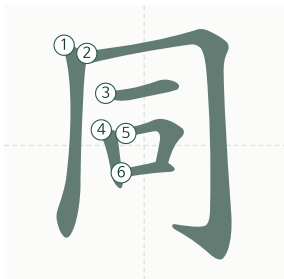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湯/

入 뜻·음 들입
총 2획 · 부수 入

hanja.wordrow.kr/한자/入/

同 뜻·음 한가지 동
총 6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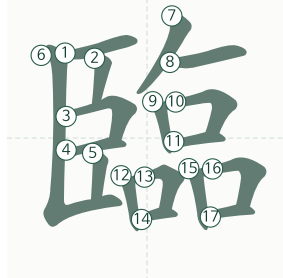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同/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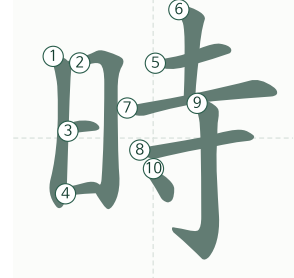
뜻·음 임할 림
총 17획 · 부수 臣



hanja.wordrow.kr/한자/臨/

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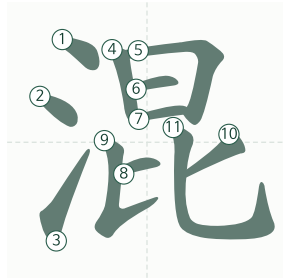
뜻·음 때 시
총 10획 · 부수 日



hanja.wordrow.kr/한자/時/

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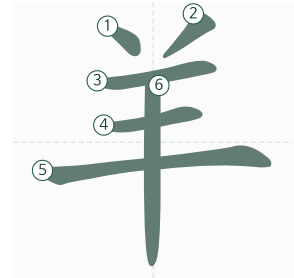
뜻·음 섞을 혼
총 11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混/

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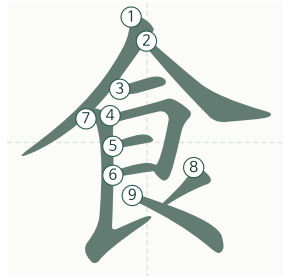
뜻·음 양양
총 6획 · 부수 羊



hanja.wordrow.kr/한자/羊/

食

뜻·음 밥·먹을 식
총 9획 · 부수 食



hanja.wordrow.kr/한자/食/